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2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히브리서 2장 14-18절

설교제목 : “예수님의 성육신”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를 밝히는 곳은 히브리서 2:5-18이 유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당시 기독교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점은 네로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유는 당시 독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육신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육신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14-15절)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뭐니까? 사실 죽음이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요1:4)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소유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요1:12)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두려운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예수 없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는 것입니다.(고후5:4)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온전히 얻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존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17-18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며**, 18절에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왜 생명이 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 본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길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임

니다.(히2:17) 본문의 속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대속죄일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심은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히9:12)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함입니다.(히2:18) 죽음도 두렵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죽음을 택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시련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보다 고통스런 이 땅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시련을 경험하시고,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시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참고 사53:4-5)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히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본문에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예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시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긍휼은 단장의 아픔인데,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물로 한숨짓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고, 단지 아픔만이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점철된 이 땅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더욱 예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이 땅의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삶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내년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